

영암군, 지역사회 골목경제 활성화 ‘모색’

군수 직속 상가 추진단 회의 새 정부 국정기조 선도 목표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지원 등 2026년 지원 사업 반영 계획

전라남도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회의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듣고 자생력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골목경제 활성화’ 등 국정기조를 선도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기초 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정비용 보전 방안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풍수 및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마케팅 지원 방안으로는 관광객 방문 유도 블로그 홍보, 사은행사 및 프리마켓 등도 제안됐고, 창업 임대료와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 소상공인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도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영암군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선별해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윌출페이’ 사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영암군제공

용설명서를 통합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도울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 경제의 최전

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영암군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탄저병 방제 약제 지원 감·포도 등 5개 품목 재배 농가

전라남도 해남군이 과수 탄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고온과 잦은 강우로 과수 탄저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과수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감염 시 과실에 검은 반점을 만들고 썩게 하여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병해이다. 한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과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5개 품목을 재배 중인 관내 165농가, 85ha 면적을 대상으로 방제약제 2회분을 지원하며 약제 배부는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군은 지난 4월 방제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제 효과와 우수한 약제를 선정해 바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국민복지 등 4개 분야

전라남도 무안군이 오는 7월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실행가능성·참신성·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4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3명(각 20만원), 노력상 4명(각 10만원) 등 총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군청에 반영하고, 법령·제도·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제11회 섬 병어 축제’가 열린 지난 13~14일 신안군 지도읍 절갈타운일원에서 지도초등학교생들이 송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신안군제공

신안군, ‘제11회 섬 병어 축제’ 성황

‘제11회 섬 병어 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신안절갈타운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섬 병어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해 지역의 제철 수산물인 병어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2000여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행사 프로그램은 병어회 비빔밥 무료 시식회와 지도초등학교생의 단체 리코더 공연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한 송어 치어(성능수산양식 4만미 무상 제공) 방류 행사가 지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돼 교육적 의미를 더했으며 우천을 대비한 동행 차광막 시설 설치 등 세심한 운영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래만 신안군 섬안전개발구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병어 축제는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병어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여 지역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국민건강보험공단, 저출생 대응 나선다

축축한 양육 체계 구축

전라남도 해남군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해남진도지사와함께 ‘해남아이 가치기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지원과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100만원 지원 △출산·양육 관련 공공서비스 공동 안내 및 연계 △지역 보건 자원의 통합적 활용 등으로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축한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2월 해남청년회의소와의 1호 협약을 시작으로 두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해남진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남아이 가치기움 프로젝트’는 기관

별 역할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출산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061-531-3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의 폭을 넓혀, 각각의 협력이 모여 지역사회 전체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해남군민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구축 논의 신안·웅진·울릉군

전라남도 신안군을 비롯해 웅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군, 웅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인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웅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도 살폈다.

신안군에서는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웅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를 경우 감안해 지역마다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고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속가능한 농어촌 선도모델 구축 해남군-전남대

전라남도 해남군과 전남대가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군수와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농어업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적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의 공약과제인 지방대 육성 및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과 미래 농산업 전환을 위한 R&D 강화 등과 연계해 이뤄지는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학·연구기관 연계형 교육 정주도시 조성 △해와농업 개발 등 국제 교류를 위한 인재양성 및 시스템 구축 △첨단 농어업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관학 클러스터 조성 △농어업 특화분야 교육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대 농어업 생산기지인 해남군의 인프라와 전남대학교의 연구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이라는 공동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공동추진단과 농어업 관련 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